

뉴스홈 > 속보 > 세계

01.05 (수) 청주 -1.8°C

### <AsiaNet>Hera와 EISER Global Infrastructure Fund, Herambiente 지분 20%에

연합뉴스 | 기사전송 2010/07/28 17:4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스크랩 메일 인쇄

대한 계약을 체결

-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진행된 거래로 인해, 전국적인 환경사업 부문에서 Herambiente의 리더십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볼로냐, 이탈리아 7월 28일 AsiaNet=연합뉴스) Hera Group과 EISER Infrastructure Limited(Ambiente Arancione Cooperatief U.A)가 지배하는 한 기업이 환경 부문에서 Hera Group의 지주회사인 Herambiente의 지분자본 20%를 인수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을 오늘 체결했다.

지분 20%의 매입금은 1억 560만 유로(2009년 12월 31일 순재정 상태 변화에 따라 조정)이다. 이에 따라 Herambiente의 지분 100%의 가치는 528백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지분 20%의 매각에 더하여, EISER는 지분 20% 매각 완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지분 20% 매입금과 같은 주가로 Herambiente의 지분을 추가로 5% 더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받았다.

2009년 7월 1일자로 주식회사가 된 Herambiente는 이탈리아 도시 및 특별 폐기물 처리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그룹은 폐기물 수거를 제외하고 폐기물 처리 사업의 전 사이클을 관리하며, 77개의 공장(매립지, 폐기물 전한 에너지, 선별, 회비, 화학-물리, 생물안정성, 바이오가스, 혐기성 소화, 슬러지 처리, 비활성화 및 저장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Herambiente는 7개의 WTE 공장(그 중 5개가 최근에 건축되었다), 11개의 매립지 및 110 MW가 넘는 에너지 회복 설치 역량을 갖추고 있다.

2009년 Herambiente는 500만 톤의 폐기물을 처리했으며, 그 중 170만 톤은 도시 폐기물이고, 330만 톤은 특별(하위제품을 포함하여) 폐기물이었다. 또한 3억 6,800만 유로의 소득, 1억 4,800만 유로 EBITDA 및 2,800만 유로 순수입을 통합했다.

EISER Global Infrastructure Fund("EISER")는 유럽 굴지의 기반시설 펀드 중 하나로서, 총 펀드액이 11억 유로를 넘으며, EISER Infrastructure Limited의 경영 하에 놓여 있다. EISER는 주로 EU에서 이미 10개 기업의 지분을 매입했으며, 총 기업 가치가 30억 유로를 넘는다. EISER는 환경 사업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7년 영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며, 런던 동남부에 폐기물 전한 에너지 공장을 건설 중인 Cory Environmental을 인수했다. EISER는 이미 이탈리아에도 진출했으며, 가스 전송 업체인 Societa Gasdotti Italia를 100% 소유하고 있다.

Hera의 회장인 Tomaso Tommasi di Vignano는 "이번 거래로 Hera와 Herambiente는 1등급 재정 파트너이자 주주를 얻게 되었다"면서 "이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Herambiente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구축한 리더십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그런 파트너를 얻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ISER Infrastructure Limited의 최고경영자(CEO)인 Hans Meissner는 "이번 거래가 성사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Herambiente는 훌륭한 기업이며, 이탈리아 폐기물 부문은 좀 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과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당한 성장 및 향상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 EISER 역시 Hera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내에서 기존 기반시설 입지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반트러스트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이번 거래는 2010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Hera의 재정 고문은 Lazard & Co. S.r.l.이고, 법률 고문은 LS Lexjus Sinacta와 Dewey & LeBoeuf이다. EISER의 재정 고문은 Citii이고, 법률 고문은 Latham & Watkins이다.

이시각 주요뉴스

더보기

- 1 한미, 6자회담 재개 위해 남북관..
- 2 충남 보령·당진 구제역 의심신고로..
- 3 [마켓인] [크레딧마감] 기존 은행..
- 4 YS, 전 재산 사회 환원키로...규모..
- 5 삼성 사상 최대 43조 투자 어디..
- 6 구제역 돼지 유통, 이력추적 어려..
- 7 이란 마지막 왕의 왕자 쫓겨 자살..
- 8 내일 '소란' 한파...서울 -12°C..
- 9 상의 신년인사회, "상생과 화합의..
- 10 서울시 무상급식조례 공포 거부....

치과치료비 더 이상 고민하세요!

- 임플란트 보장
- 브릿지 보장
- 틀니 보장
- 크라운, 충전치료 보장

무료상담신청 / 헤레빈가 잇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1 여학생 탈의실에 CCTV 설치 알몸 촬영
- 2 신종플루 사망 사람 죽는데...그냥 감기?
- 3 LG '올타머스탑' 사진유출
- 4 666 새기는 '사탄교화' 활동금지
- 5 김영삼 전대통령 "전 재산 사회환원"
- 6 탈모 원인 밝혀져... 대머리 없어질까?
- 7 쏟아지는 신차... 우리가 기대해
- 8 이란 왕자, 미국 자택서 '자살'
- 9 진해 경찰관 살해 용의자 신병 확보
- 10 이란 마지막 왕의 왕자 쫓겨 자살(종합)

< 1/3 >

뉴스플러스

더보기

- 1 오세훈 "합리적인 내가 인터넷에서..
- 2 진중권, 이병헌 고현정 두툼 "결..
- 3檢 "한명숙 남동생 계좌에 압영역..
- 4 "O억 이하로는 팔지 마세요"....
- 5 김영삼 전대통령 "전 재산 사회환원"

얼린토론

더보기

명진스님 "포항 '형님파'에 대한민국 거렬.. 오세훈 "합리적인 내가 인터넷에서 난도질당.. [와글와글 클릭]"구제역은 야당 때문"...

연락처

Hera S.p.A.

Direttore Relazioni Esterne

Giuseppe Gagliano

Responsabile Rapporti con i media

Giorgia Freddi

전화: 39-051-287138

이메일: giorgia.freddi@gruppohera.it

EISER Infrastructure Limited:

Hans Meissner, Partner and CEO

Hafeez Ahmed, Partner and CFO

Vivian Nicoli, Partner

전화: 44-207-323-7500

이메일: hafeez.ahmed@eiserinfrastructure.com

자료 제공: Hera S.p.A and EISER Infrastructure Limited

(끝)

<뉴스의 새 시대, 연합뉴스 Live>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포토 매거진>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동영, 김정일에 방북 타진 공개 서한  
[외교외교 클락]소양교회 목사·부목사 간 폭..

포토 슬라이드

더보기



대화하는 한-미



설 열차표 미리 준비하세요!

< 1/3 >

공감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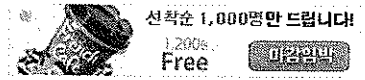
더보기

'미네르바 사건' 적용 범이었던 전기통신기본법 47 조1항에 대해 위원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 찬성...표현의 자유 우선
- 반대...유언비어 낱말 우려
- 잘 모르겠다

투표하기    결과보기

광고포커스



매일매일 1,000명씩 선착순 무료 제공

'보너스365'에서 오늘만 드리는 Free 보너스!

\*\*\*\*\*

업론시별 뉴스 ▾

제공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전체보기

0 0

댓글양성

댓글달기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애드플렉스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 책임주의!  
온라인광고하면 떠오르는...  
돈버는 광고 나도 해볼까?  
약은약사에게, 광고는어디에?

광고문의

김사장, 매출 어떻게 올렸어?  
철저한 광고효과하면 무엇?  
박사장, 온라인광고를 알아?  
돈되는광고 vs 안되는 광고?

이전페이지    뉴스홈으로    맨위로

공지사항 > [오픈] 뉴스 실시간 의견 소설기능 강화 | [오픈] 뉴스파인더 안드로이드 버전 출시

편집가이드 | 편집실 | 이용약관 | 권리침해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광고안내    파란 뉴스 기사배열 책임자: 최유성팀장 newsmaster@paran.com

© KT Hitef